

# 新安의 뿌리

李 吉 龍

(長山遺蹟保存管理委員)

## 1. 沿 革

三韓時代는 馬韓에 屬하였고, 三國時代는 A·D 18 沸流百濟(비유백제) 皐夷島城(고이도성)에 屬해 있다가 A·D 479에(東城王 5年) 溫祚百濟 勿阿部 阿次山郡(現 押海)이라 稱했다.

A·D 475 高句麗 長壽王(장수왕)이 3萬 大軍으로 溫祚百濟 第21代 蓋鹵王(개로왕)을 侵攻하여 焦土化하니 第22代 文周王(牟都)이 瀕死狀態(빈사상태)에서 熊津(熊津:公州)으로 遷都하여 國號를 百濟로 부르고 沸流百濟의 政治 理念인 擔魯制(담로제) 즉 地方 分權制(自治制度)를 받아 드려서 殘存 沸流百濟 小王國들의 自進 歸化로 起死 回生하자 第24代 東城王이 八姓 大族制 즉 郡縣制(中央執權制)로 달마꿈 하였다.(換骨脫胎)

B·C 18~ A·D 396은 沸流百濟에 屬해 있었다.

景德王 16(757)年 行政區域을 改編하여 壓海郡(現 押海) 安波縣(現 長山)의



로 改稱했다.

高麗 太祖 23(940)年 各 縣名을 改稱했다.

陸(六)昌縣, 長山縣, 臨淄縣이다.

顯宗 9(1018)年 끝까지 王建에게 저항한 탓으로 壓海郡을 廢郡하여 壓海縣과 陸(六)昌縣은 靈光郡에 移屬하고 長山縣은 羅州牧에 隸屬시켰다.

위와 같이 縣을 分散시킨 것은 西南海 섬 住民의 勢力이 莫強할 뿐 아니라 後百濟를 思慕 支援하므로 王建이 島嶼民의 勢力을 弱화시켜 後百濟를 다시는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취한 것 같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으나 倭寇(왜구)의 侵奪로 廢郡했다는 記錄도 있다 한다.

이 때 壓海郡을 紹介하면(교려사 지리지 1451년 정인지 著)

■ 육창현(陸(六)昌縣)

比島(비금) 薈島, 神葦島, 靑島, 香島, 白良島, 慈恩島, 崑墮島(岩泰), 鷺島, 乃破島, 鷺島(11個島)

■ 壓海縣(압해현)

只上島, 道沙島(都草), 斤斬島, 述只島, 毛也島, 八欠島(八禽), 靑安尼島(7個島)

■ 長山縣(장산현)

古參島, 新伊良島, 上於島(新衣), 安昌島, 阿於島(荷衣), 松島(6個島)

여기서 집고 넘어 갈 점은 옛날엔 漢字가 없었으므로 순수한 우리말인 '가림토(加臨土 38字)'로 地名을 불렀으나 近肖古王(근초고왕) 30(375)年부터 漢字를 쓰기 시작했으나 吏頭(이두)로 記錄하게 되어서 지금 책에서 배운 地名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九瑟島(구슬도)는 玉島, 대머리는 竹島, 활목은 弓島, 통머리는 桶頭, 굴바우는 窟岩, 땅끝은 土末과 같이 標記하였으며, 吏頭도 文法이 數段階가 있어서,

1. 첫소리를 빌려쓰는 말



哀反多是 [서럽다]

2. 뜻을 그대로 빌려쓰는 말

物物은 [가지가지]

3. 된소리를 나타내는 말

夫婦리는 [뿌리]라고 전한다.

또 古書에는 大, 對, 地는 [多]로 勿, 門, 文, 美, 窟, 頭, 龍, 彌, 馬, 物, 惣은 [水], 涿은 [道]로 標記하였으며, 日本人[鮎具房之進]씨도 汶, 文, 勿, 物, 武, 牟, 米, 彌, 買는 물(水)을 標記했다고 발표했다 한다.

이 때 全國이 [沸流百濟] 117郡, 218縣이 있었다는 데 全南地方에 (武州 또는 武珍州)에 15郡, 43縣이 있었다는 記錄도 있다.

이 섬에 종종 倭賊이 侵犯하여 食糧과 짐승은 勿論 婦女子까지 掠奪하였으나 行政力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여 住民들을 移住시켰으리라(空島政策) 推測되는 文獻을 紹介하면,

1. 大韓新地理志(張志淵 著)에 “壓海島는 古郡으로 倭寇 數侵하야 民을 內地에 移하고 廢郡……”(1018年)

2. 東國輿地勝覽에 長山縣은 羅州牧에 屬한 후 倭賊에게 땅을 빼앗기도 羅州 南쪽 20里에 設縣하여(1350年) 살고 있다가 李朝 太祖 13年(1413) 廢縣하였는데 지금의 羅州郡 旺谷面 長山里로 史學家들이 推定하여서 踏查하였으나 별 다른 考證을 얻지 못하였다.

3. 섬 지방의 入島祖가 13代 안팎으로 본다면 壬辰倭亂(1592年) 때는 移住했으리라 推測되니 祖上님들이 陸地로 避難을 나가시면 다른 祖上님이 들어 오시기를 수차례 하셨다고 생각하면 역시 찾기란 보통일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알아 보았더니 903年에 王建이 羅州를 占領하여 第二 婦人을 맞이하였으나 弓福(張保臯)의 揮下로 들어가자 後百濟 甄萱(견훤)은 皐夷島城(現 押海面 古耳島)과 珍島에 水軍을 배치하고 城과 烽燧臺를 整備하여 王建의 再侵에 對備하였다 하며, 909年 이 소식을 전해들은 王建은 貞州(井邑 又 長興)의 精兵 2,500餘名을 兵船 70隻에 나누어 싣고, 皐夷島城에서 甄萱을 쳤고, 珍島 水軍 鎮을 攻擊 후 木浦를 거쳐 靈巖 德津浦에서 大勝을 거둠으로 後百濟를 手중에 넣은 뒤 918年 弓裔(궁예)를 弑害하고 高麗를 세웠으며, 끝까지 對抗한 壓海郡을 廢郡하였다 한다.

위의 古耳島 성터로 추정되는 古耳島를 87年에 찾아 보았더니 城의 長 1km 정도, 높이 80cm, 城 윗 幅 260cm 가량 되었다.

돌칼, 돌도끼가 出土되었다 하며, 城은 돌 한덩이 허물어지지 않았으며, 文獻



은 얻을 길이 없고, 傳하는 말은 너무 거리가 멀었다.

88年 再 踏查時 牟同龍(壬子生)씨의 親切한 案内로 寺址에서 魚骨무늬 기와片和 삼발골의 積石室 古墳터 兵器를 만들었다는 불무청터에서 靑銅器片을 얻어서 木浦大學에 提供했다.

牟老人은 城內에서 山頂까지 5계단이 있는데 練馬場으로 利用했다고 傳해오나는 것이었다.

餘談이나 [新增東國輿地勝覽] 4卷 521쪽에 高麗 太祖 莊和王后 吳氏의 아버지는 代代로 木浦에 살고 있었다.

莊和王后가 바다의 龍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지 얼마 안되어 太祖(王建)가 水軍將軍으로 羅州鎭을 지킬 때 木浦에 배를 碇泊시키고 물가 위를 바라보니 五色 구름이 서려있었으므로 太祖가 그리로 가보니 莊和王后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太祖는 그 女子를 불러서 同寢하는데 미친한 身分이라고 妊娠을 시키지 않으려 精液을 자리에 쏟았더니 王后는 곧 빨아 먹었다.

드디어 妊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惠宗(在位 2年)이다.

얼굴에 돛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世上에서는 禰主(집주:주름살 임금님)라 했고, 집자리에 큰 절을 세워서 興龍寺라 하고, 그 앞에 있는 우물을 浣絲泉(완사천)이라 하니 속설에 吳氏가 빨래하던 우물이라 한대로 記錄되었는데 羅州文化院에서 浣絲泉이 復元되고 興龍寺터는 學者間의 異見이 合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쪽이 正確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高麗 23代 高宗 10(1223)年 倭寇의 侵犯으로 避難을 하였고, 元宗11(1270)年 三別抄軍이 珍島에 들어온지 9個月만에 麗蒙 聯合軍의 攻擊으로 쑥밭이 되어 상처가 가시기도 前인 忠正王 2(1350)年 倭寇의 掠奪로 주민과 관청이 피난을 떠나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世宗 9(1437)年에 옛 故鄕에 돌아오기까지 87年間 他鄕살이를 하였으며, 三別抄亂까지 合하면 166年間 戰爭의 쓰라림을 甘受했었다 한다.

이런 때 우리 新安郡이 便安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시 官邊文書(官邊記錄)에서 찾아보던 英祖 5(1729)年 2月 兵曹判書 趙文命의 上疏文에 羅州牧에 속한 섬들이 宮中の 司僕寺(말과 가마를 취급한 부서)나 上部 官廳과 大君 및 王子, 公主, 翁主들의 宮家에서 나누어 주었는데(折受地) 羅州 監牧官이 이 섬들을 管轄하고 있으니 長山과 押海島에 設邑할 것을 지적하였고, 同年 8월에 左議政 李台佐가 羅州에 屬한 섬에 設邑할 것을 擧論하였으나 英祖께서는 새로 設邑한다고 잘 다스려 질 수도 없으며, 파견된 官長의 能力에



따라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부하나 住民의 財産을 侵漁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設邑이 保留되었다 한다.

官長들은 이 틈을 타고 擄取는 날로 심해져서 2重, 3重의 稅米로 住民들이 夜半에 섬을 떠나가거나 男負女帶로 情든 故鄕을 눈물을 흘리며 등지는 모습을 目不忍見이니 減稅해 주십사 하는 所志(진정서)를 羅州牧使에게 올린 것이 長山面 虎皮里 朴珉泰집에서 發見되었는데 陳情人인 김경호나 後孫을 찾을 길이 없다.

英祖께서 住民의 조롱거리라 지적함은 섬의 文化 水準이 생각 보다는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고, 中央 行政力이 섬 地方에 미치게 된 것은 250年 안팎으로 보면 權門 勢道家들의 橫暴는 심했으리라 생각된다.

잠간 住民 實態를 알아보면 輿地圖書의 英祖 35(1759)年條에,  
長山島 224戶, 620口(男:295口, 女:325口), 正祖 15(1789)年條,  
223戶, 577口(男:312口, 女:265口)

## ■ 촌(村)명(長山島)

公需坪村, 代世村, 是味村, 莫今村, 馬草, 頭村, 社昌村, 多水村, 新村, 九斗毛村, 道贊村, 上里, 竹頭村, 下村, 箕島(現 新衣面 屬)인데 現在의 어느 部落인지 알 수는 없는 것도 있다.

羅州邑誌(1871年條)에 長山縣인 安佐面과 荷衣面, 新衣面에 지금의 面長인 執綱이 38名이나 里洞의 書記인 風憲이 24名, 地方에 駐屯軍의 軍糧米를 마련하기 위한 宮屯田 官廳의 經費를 調達하는 官屯田 王族이나 高官의 땅을 관리하며, 豊凶에 관계 없이 一定한 小作料를 (賭租) 걷어 바치면 舍音(或云 마름)인 導掌이 22名, 士丈夫집에서 선발되어 배를 타고 다니는 領船監官과 賤穀을 保管하며, 出納하던 俸上監官을 합쳐서 諸 島監官이라하여 1名을 두었다 한다.

選拔된 監官職을 거부하면 王命으로 嚴하게 處罰했다로 記錄하였다.

新羅 本記에는,

1. 不彌國(불미국) ※ 알쉽게 現地名으로 記錄함.

三道, 本良, 林谷, 東化, 老安, 平洞, 羅州, 羅山, 多侍, 文平, 榮山, 旺谷

2. 半古國(반고국)

細枝, 錦井, 新北, 始終, 潘南, 公山, 洞江

3. 臯夷島城(고이도성)

押海, 安佐, 長山, 智島



※ 高麗 때 三鄉面이 屬해 있음.

4. 不彌支國(불미지국)

金川, 山浦, 南平, 茶道, 鳳凰

都漢國(高興), 面中國(光州), 八中候(羅州), 弗中國(寶城) 등은 沸流百濟의 擔魯制(담로제) 卽 小王國 制度로 地方 分權制라 한다.

建國初엔 22個國이었으나 全盛期에는 54個國으로 黃海道→西海岸→釜山에 이르렀고, 楊子江 流域까지 進出해서 海洋 國家로 發展해 갔음이 外國 記錄에서 점차 發見되고 있다하며, 上古史를 살펴 보는데서 좀더 詳細히 記錄해 보겠습니다.

各 面의 移動 年代를 찾아 보면,

\* 智島面 — 1848年 ~ 1897年 靈光郡에

\* 都草面 — 1715年 ~ 1897年 莞島郡에

\* 飛禽面 — 1715年 ~ 1897年 莞島郡에

\* 八禽面 — 1896年 ~ 1914年 莞島郡에

\* 牛耳島 — 1715年 ~ 1897年 海南郡에

\* 安昌箕佐 — 1896年 ~ 1914年 珍島郡에

\* 馬津島 — 1896年 ~ 1963年 珍島郡에

위와 같이 여러 도서가 이리저리 옮겨졌음은 行政上 便宜 보다는 特産物 關係로 高官들의 弄奸과 折受地(王이 下賜한 땅)로 行해졌던 것 같다는 것이다.

三鄉面이 高麗 때부터 阜夷島城에 속해 있다가 羅州牧으로 移屬되었고, 1895年 務安郡으로 編入된 것으로 보아서 古耳島 城터가 三鄉面에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1986년에 踏查하였더니 龍浦部落에 五龍山 城터가 있는데 周圍 3km, 面積 40萬坪 가량되며, 마을 바로 앞에 배가 닿아서 龍浦라 불렀고, 竹이 많이 있어서 大삽고랑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대로 화살을 만든 창(廠)이 있어서 [창터삽]이라 불렀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三鄉의 竹箭은 天下에 소문났다.”고 기록하였으니 여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또 原麥浦部落을 中心으로 國仕峯 능선을 따라 둘레가 4km 쯤 되는 城이 있었는데 一老面으로 가는 큰 길에 다리가 있는 곳이 大門거리고, 그 안쪽이 솔대거리라 지금도 부른다고 한다.

大門거리란 城門으로 出入者를 檢問, 檢索한 곳이고, 솔대 거리란 걸어가면서



화살을 쏘아서 맞춘(步射) 과녁을 말하고, 솟대거리란 科擧에 합격한 사람을 위해서 마을 어귀에 높이 세운 장대인데 붉은 색을 칠한 장대 끝에 나무로 만든 龍에 靑色을 칠하여 불렀다고 전하니 高麗 때 制度로 보여 地名에 뜻이 있어 보였다.

國仕峯 西쪽에 烽燧峯(봉화)이 있고, 山 밑에 봉수동(왕산리)에 있으며, 極浦部曲이 下塘(공업단지 앞) 임을 알게 되었다.

部曲이란 特殊 技術 卽 화살, 창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정 장려하는 部落을 말함이라 한다.

이상의 變遷을 圖表로 만들어 보면,

馬韓	百濟	統一新羅	高麗	朝鮮前期	朝鮮後期	倭政	光復後
BC18	BC17-AD660	661-935	936-1391	1392-1592	1593-1910	1911-1945	1945~
阜 夷 島 城	◦阿次山郡 ◦阿次山縣 阿老縣	馬海郡 偈島縣 加位, 阿老, 谷野, 葛草, 葛島縣으로 바꿈	壓海郡 壓海縣	廢縣 太祖23年 (1423)	智島郡 (1897)年 押海	務安郡 (1913)年 押海面	新安郡 (1969)年
	◦居知山縣 安陵縣	安波縣	長山縣		長山	長山面	
	◦古祿知縣	壓海縣	陸(六)昌縣 (臨淄縣) 三鄉部曲 군산, 국포, 임성		智島 三鄉務安郡 으로編入 (1895)年	智島面 三鄉面	
		※ 景德왕 16(757)年	※ 太祖23 (940)年				

## 2. 古代 四王朝

讀者의 理解를 돕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上古史를 살펴 보면 三國史記는 金富軾이 1145년에 著述했고, 三國遺史는 中 一然이 1285년에 쓴 것인데 特權者의 입김인지 資料 不足인지 沸流百濟는 말살해 버리고, 溫祚十濟를 百濟로 둔 감시켜서 沸流百濟의 歷史를 溫祚十濟에 숨겨 쓰다보니 年代(紀), 장소(志), 事



件 內容(列傳)이 重複되어 後學들의 甲論乙駁의 原因이 되었고, 日本이 倭政 36 年을 侵略이 아니고 復古라고 主張하는 原因을 안겨 주었으며, 近間の 韓國 歷史는 三王朝의 始祖 이름과 100~400年間의 實存王을 神話로 取扱하였으니 觀光次 韓國에 온 日人들에게 무어라 說明하며, 一線 教壇에서 춧불이 되어 主神 先 生님들께서는 어떻게 民族魂을 教育할 것인가?

教育 放送이나 史學家들의 發表를 들어 보면 三國史記를 金科玉條로 믿고 있는 것 같고, 自己 主張과 다르면 野史나 私見이니 하고 卑下시킨 것 같은데 權威 意識이나 아집을 버리고 古書를 多讀하고 第3國의 서적과 비교검토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유명한 史學家를 親日 賣國으로 지탄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理解가 되지 않은 대목도 있으니 歷史를 찾아가는 자세는 正중하고 겸허한 態度가 必要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3. 沸流와 溫祚의 建國

始祖 沸流王의 父는 優台(우이 或 우대)로 北扶餘, 解夫妻의 庶孫이고, 母는 卒本人延陞勃의 딸로 召西奴였다.(百濟本記 序說)

不幸하게도 男便 優台가 死亡하자 아들 沸流와 親庭인 卒本扶餘에 와서 살고 있는데 東扶餘에서 朱蒙(一名 東明)이 逃亡해 와서 卒本에 高句麗를 세우고(B·C 37) 召西奴를 妃로 삼아(이 때 主몽 20세, 소서노 28세) 溫祚를 낳고, 단란하게 살며(傾家財 助成邦業) 至極한 사람을 받아 왔는데 朱蒙이 東扶餘에 있을 때의 前妻인 禮氏 夫人이 아들 孺留(一名 類利)와 逃亡해서 卒本으로 오니 朱蒙은 孺留로 太子를 삼고 王位도 繼承 시켰다.

이를 본 沸流와 溫祚는((異父 同腹이나 朱蒙生二子 兄曰 沸流 弟曰 溫祚로 親兄弟로 記錄되었음) 어머니를 모시고 帶方故地(황해도 재령강 上流)에 나라를 세우고(初立國 B·C 18) 遼東 太守 公孫度の 딸을 妃로 삼라 東夷 強國이 되었다.(北史, 隋書 三韓傳에 仇台 遂爲 東夷 強國, 仇台는 沸流의 別名)

樂浪과 國境 紛爭으로 開城 地域에서 一戰을 치른 뒤에(B·C 9) 沸流의 勢力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한 樂浪은 말갈族을 시켜서 자주 沸流를 공격함으로 沸流는 할 수 없이 湨水(예성강)와 帶水(祖江 江華島 北쪽)를 건너서(渡 湨帶 二水) 海濱 離忽(배빈 미추홀) 즉 牙山灣 仁州里로 南下하여 새로운 도읍터를 찾으려고 負兒嶽에(龍仁 負兒山) 올라 갔었으나 溫祚와 意見이 엇갈려서 바닷가에 살기를 원하였던 沸流는 “해빈 미추홀”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니(B·C 7) 百戶가



바다를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뜻으로 百濟라 불렀고(百家濟海 因國號 百濟:隋書, 仇兌, 遂爲, 東夷強國 初以 百家濟海因國號 百濟:北史) 擔魯制 즉 地方分權制를 실시하여 22個의 小王國이 있었다.

溫祚는 河南 慰禮城(天原郡 稷山)에서 나라를 세우니(B·C 7) 十臣이 도와서 建國했다하여 十濟라 불렀다.(十臣爲輔翼 因國號 十濟) 郡縣制 즉 中央執權制를 실시하였다.

兄弟가 分立하니 어머니 召西奴는 두 城을 往來하며, 다시 결합할 것을 권유하나 十濟의 강경파인 十臣이 반대하여 水泡로 돌아가자 이 강경파를 除去하기 위하여 沸流에게 내통하여(老嫗化爲男) 入城을 유도한 것이(五虎入城 B·C 6) 탈로되자 十臣의 강경파는 61세의 國母를 殺害하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沸流의 攻擊을 피하여 溫祚는 다급하게 漢山(廣州)으로 도읍을 옮겨가며(B·C 5) 熊津(公州)의 馬韓王에게 천도를 알린다.

溫祚가 建國할 때 馬韓王이 東北 1百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땅을 沸流가 차지하지 못하게 한 예방조치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百濟 本記에는 沸流는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어 버렸다.”(土濕, 水鹹, 慙梅而死)로 기록하여 歷史를 斷絶시켜 버렸고 溫祚는 人民安泰라 기록하였다.

이리하여 三國史記를 쓰면서 沸流의 紀(年代), 志(場所), 列傳(內容)을 溫祚에게 숨쳐서 쓰다보니 地名 比定에 混亂이 왔고, 內容이 애매해 졌으며, 外國 書籍과 고리가 잘 연결되지 않았으며, 沸流百濟를 철저하게 말살하여 A·D 396까지 413年間 持續된 沸流를 建國初에 消滅된 것으로 記錄하였다.

沸流는 B·C 18에 建國하였고, 溫祚는 B·C 7에 建國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著名한 史學者이신 이병도 博士님은 “해빈 미추홀을 仁川, 慰禮城은 서울로, 負兒嶽은 仁壽峯으로, 帶江을 漢江으로 比定하였는데 負兒嶽을 仁壽峯이라 比定하면 現代 登山 裝備로도 오리기 힘들산을 옛날에 무슨 재주로 올라 갔으며, 慰禮城의 指標에 惟此 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이니 北쪽에 漢水(漢江)가 흐른다면 서울이 맞지 않으며, 龍仁에 負兒山이 있으니 天原郡 稷山이 틀림없다는 것이나 現在 史學家들게서는 慰禮城을 서울로 負兒嶽을 仁壽峯으로 고집을 하니 어느 것이 맞지는 모르겠으나 後學들이 어떻게 배워야할지 자 못 걱정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 4. 新羅의 建國과 周邊 情勢

B·C 108에 漢武帝의 侵攻으로 위만조선 진변 진국은 樂浪에 吸收되고 “한터마한”(韓馬韓)이 서울 江南區에 있었다고 한다.

新羅 始祖 朴赫居世는 號가 居西于으로 東胡族의 分派로 烏丸族이다.

아버지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徐那伐(서울 가좌동 - 一說 이태원)에 定着하여 (B·C 87) 기반을 다져왔는데 父親이 世上을 떠나니 朴赫居世는 13歲로 權座에 올랐다.(前漢 五鳳 元年 B·C 57) 國號를 徐那伐이라 稱하고, 地名도 徐那伐이었다 한다.

지금까지 慶州로 比定해 왔으나 慶州는 朝鮮 遺民의 先住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樂浪이 徐那伐을 侵攻한(B·C 28) 記錄이 있는데, 그 당시 交通 事情이나 國境 關係를 생각해 볼 때 平壤에서 慶州를 攻擊했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렵고, 赫居世 38年(B·C 20) 淸州(娘子 谷城)로 南下하여 報恩(蛙山城)을 거쳐 尙州(沙伐)를 지나서(A·D 60) 徐那伐(慶州 月城)에 到着한 것은 A·D 101로 되어 있다 한다.

第2代 남해왕 11年條에(A·D 14) 樂浪이 關川이 侵攻했는데 이 關川이 慶州 南川이라면 이것 역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朴赫居世가 權座에 오르자 重臣인 瓠公을 使臣으로 馬韓에 보내니 馬韓王이 “屬國이면서 近年에는 朝貢을 얹으니 이것이 事大之禮냐”고 詰責한 對談으로 보아 徐那伐은 馬韓의 諸侯였던 것 같다는 것이다.

赫居世가 점점 強勢해지자 馬韓을 攻擊하니 熊津으로 쫓겨나서(B·C 18) 熊津 馬韓이라 불렀고, B·C 7에 溫祚 建國時 東北 1百里地를 割愛하였던 것이라 하며, 赫居世의 攻擊을 받아 熊津으로 避해 갔다면 서울에서 慶州와 거리도 가깝고 山脈도 없는(돌아서 攻擊하기 容易함) 熊津으로 遷都했다는 점도 理解가 되지 않는다 한다.

熊津馬韓이 國內가 騷亂하며, 政權 維持가 어려워진 것을 눈치챈(上下離心·其勢 不能父 A·D 9) 沸流는 사냥을 구실삼아 大軍을 動員하여 몰래 攻擊하였다.(潛襲 馬韓)

이듬해(A·D 10) 錦峴城(扶餘), 圓山城(한산의 원산)을 마지막 攻擊하여 馬韓을 滅亡시켰다.(遂滅 馬韓)

A·D 18 沸流가 熊津城(公州)으로 遷都하니 馬韓은 全北 益山으로 쫓겨가서 益山馬韓 또는 乾馬韓이라 부르다 소멸 되었다 하며, 熊津城에 沸流(一名 仇台)



의 墓가 있어서 熊津遷都가 確認된다고 한다.(熊津城 始祖 仇台之墓:周書 百濟傳)

漢江을 中心으로 樂浪, 말갈, 남옥저 등의 北方 勢力과의 接觸기사는 溫祚十濟와의 記事로 보아야 地域的 二重性이 解決되며, 沸流와 仇台를 別個人으로 分離하는데서 國史의 脈絡을 찾지 못한 原因이 되었다 한다.

沸流百濟 全盛期엔 黃海道 帶方故地→西海岸→南海岸→釜山까지 吸收하였고, 中國 楊子江 流域까지 進出した 것으로 보아 勢力이 莫强하였으며, 54個 小王國을 統治했고, 建國初부터 海洋 國家를 꿈꾼것으로 推測하기도 한다.(北史, 周書通典, 百濟傳, 南濟書)

A·D 392 廣開土王이 親히 4萬 大軍을 이끌고 漢水(漢江) 以上の 利殘國(沸流百濟)의 18個城과 關彌城(金川 助邑浦)을 陷落하고(首攻取) A·D 396에 利殘國을 討滅하니 B·C 18에 帶方故地에 建國한 沸流百濟는 413年間 持續하였다 한다.

利殘國을 討滅한 廣開土王은 王弟 十臣을 人質로 回軍하면서 阿利水(漢江)를 건너서 百殘國(溫祚十濟 ※ A·D 371에 北漢山으로 遷都함)의 降伏을 받고 男女 生口 1千과 細布 1千匹을 貢物로 지금부터 永久히 부하가 되겠다는 盟誓를 받은 뒤(今從以後 永爲奴客) 講和가 된 것 같다는 것이다.(廣開土王 碑文)

그러면 利殘國의 王弟 十臣 外의 王室 宗親과 集團은 沒殺일까? 亡命일까? 다음으로 미루고 漢城의 百殘國은(溫祚十濟) 高句麗 長壽王의 三萬 大軍이 [七日七夜 四度 火攻]으로 위태롭게 되자 21代 蓋鹵王(扶慶)은 重臣인 牟都를 보내서 新羅에 救援兵을 請하였다.

牟都가 救援兵 1萬名을 이끌고 漢城에 이르니 이미 焦土化하였고, [國王, 太子, 王子, 男女 生口 八千]이 拉致되어[皆邊敵手] 牟都는 자동으로 王이 되니 22代 文周王이다.(A·D 475)

九死一生에서 王이 된 文周王은 瀕死狀態에서 熊津城으로 遷都하여 利殘國의 남아 있는 小王國을 糾合하려고 國號를 百濟로 부르고 權魯制도 받아 들여서 小王國들이 自進 歸化하니 戰爭 한 번 치르지 않고 西南海 全域을 掌握하여 起死 回生하였다 한다.

金某 教授는 蓋鹵王이 문주와 곤지 二子가 있었는데 文周는 王이 되고 곤지는 日本으로 亡命했다는 說이 있다고 하나 [國王, 太子, 王子, 男女 生口 8千 拉致]와 맞지 않은 것 같다.

또 拉致한 王子를 바로 王으로 封해서 管掌하기도 힘든 公州로 내려 보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強勢해진 熊津百濟는 東城王 元年(A·D 479) 八姓 大族制로 변신해 버리고 郡縣制로 되돌아가 버렸다.(換骨 脫胎)

※ 22代 文周王 牟都 在位 2年 殺害

23代 三斤王 在位 2年 殺害

24代 東城王 牟大 在位 22年 殺害

25代 武寧王부터 다시 餘氏로 이어지는데 牟氏 三王이 殺害됨은 基盤 勢力이 없으므로 餘氏派에서 한 것 같다는 것이다.

A·D 475에 熊津으로 遷都한 溫祚十濟는 63年間 체재했으니 大規模의 古墳群은 沸流百濟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것이다.

東城王의 二子가 武寧王이라 記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武寧王은 父王을 殺害한 후 王이 되었고, 3代가 殺害된 것으로 보아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A·D 1917에 宋山里에서 발굴된 武寧王陵에서 買地卷(石製)이 발견되었는데,

[錢一萬文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以前件錢訟土王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故立卷爲明

不從律令]

풀이하면 [A·D 525年 8月 12日(逝去日字) 寧東大將軍(宋國 官號) 百濟 斯麻王(武寧王)은 錢一萬文으로 提起된 訟事를 解決하기 위해서 土王, 土伯, 土父母, 上下衆官에게 곡식 2千石을 추가로 주어 이 陵地를 買入하고 買地卷으로 이를 밝힌다. 그리고 이 買入 契約은 律令에 따르지 않는다.] 이다.

이상한 것은 現在 王이 自己 陵地를 錢一萬文과 곡식 2千石을 주고 사야만 하며, 現王께서 陵地代를 받아 낼 수 있고, 訟事를 할 수 있는 이 集團은 과연 어떤 集團이며, 王法 보다 偉力이 높은 이 律令은 어떤 律令이고, 陵이라 하지 않고 爲墓라 刻했을까? 이런 점에(當時 社會制度) 對해서는 言及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남의 學說은 野史니, 私見이니 하고 批判이 높은 것 같다.

또 교수님들께서는 遺蹟, 遺物을 찾느라 바쁘시겠지만 찾아 낸 遺物에 對한 研究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 5. 日本 建國과 沸流百濟 亡命

日本 建國 神話에,

伊奘諾尊(이사 니기노 미고도)(兄) 夫

天照大神(아마데라스오호미가미)(女)

月讀神(쓰구요미노미고도)(男)

素淺鳴尊(스사노오노미고도)(男) } 三男妹

伊奘冉尊(이सान미노미고도)(妹) 婦

가 있었는데 “日本書記”에 神代 八代孫인 [素淺鳴尊, 師其, 五十猛神, 降到於, 新羅國, 居, 曾尺茂利之處, 乃與言曰, 此地, 吾 不欲居, 遂以, 埴土, 作舟, 乘之東渡, 到, 出雲國……]이라 記錄하였다.

풀이하면,

[父麻那利(구마나리 즉 고티리 熊津임)에서 쫓겨난 素淺鳴尊은 그의 자식 五十猛神을 때리고 신라군 曾尺茂利(소시모리)에 하늘에서 내려 왔으나 아들이 이곳에서 살기 싫다고하여 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서 東쪽에 있는 出雲國으로 갔다.]는 것인데 曾尺茂利를 日本 史學界에서 春川の 牛頭山(소머리산)으로 比定하고 山위에 神壇을 설치하였으나(解放前) 牛山(鎭海)으로 보아야 父麻那利(公州)에서 九州 出雲國까지 海上 通過의 中間 地點으로 比定된다고 한다.

素淺那尊은 아들 五十猛神과 바로 出雲國으로 下降하지 않고 왜 신라국 소시모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기 싫다고 하니가 出雲國으로 건너 갔을까? 이것은 亡命한 百濟 後孫이 古事記나 日本 書記를 쓰면서 간접적으로 祖上이 한국사람임을 시사한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쫓아낸 사람도 百濟人이고, 쫓겨난 사람도 百濟人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日本의 9代 以上の 天皇 記錄은 한결같이 世系→即位→遷都→崩의 形式으로 짧은 文章이고, 歷史的인 記錄은 볼 수 없으며, 다만 第1代 神武天皇만을 事件 記錄이 長文이라 한다.

沸流百濟(利殘國)이 A·D 396에 廣開土王의 攻擊으로 事態가 危急하게 되자 王弟의 十臣으로 防禦케 하고 나머지 王室 宗親과 그 외 集團이 日本으로 亡命하여 北九州 福岡縣 系島郡 前原町에 첫 발을 디뎠고(上陸點이며, 出雲國임) 東으로 移動하여(東征 7年史) A·D 397 正月에 檀原官(奈良縣)에서 即位하니 第15代 應神天皇이며, 實存 天皇이 起源이라 한다.



沸流百濟 應神王이 卽位한 것이 A·D 390인데 應神天皇이 卽位한 것도 A·D 390으로 日本 書記에 記錄한 것은 東征 七年史를 操作하기 위해서 쓴 것 같다는 것이다.

日本 書記 應神條에,

應神 7(396)年條:高句麗人, 百濟人, 任那人, 新羅人, 並來朝

應神 14(403)年條:弓月君, 自百濟, 來歸…百廿縣民而歸化

應神 20(409)年條:倭漢直祖 阿知使主…並率己之 黨類 十七縣民

이라 記錄되었다.

應神 7年條는 沸流百濟(利殘國) 應神王이 高句麗 廣開土王에게 敗亡하여 日本으로 亡命한 것을 並來朝로 記錄하였고, 應神王은 敗亡하였지만 亡命한 다음해(397) 天皇이 되니 卽時 溫祚十濟(百濟國)에게 天皇이 된 소식도 전하고 버려진 옛 疆土 五個 圈域을 忱彌多禮:(濟州道), 峴南:(車嶺山脈 以南), 支侵:(車嶺山脈 以西), 谷那:(禮成江 流域), 東韓之地:(慶南 海岸), 讓渡하니 百殘國(溫祚) 阿花王(一名 阿莘王)이 直支太子(一名 腆支太子)를 同年 3월에 應神天皇에게 보내어 謝禮한 것을 日本書記에는 百濟記云이라 序頭に 쓰고 [阿花王이 倭에 缺禮하자 應神天皇이 百濟의 五個 圈域을 奪取했다가 直支太子를 人質로 하여 五個 圈域을 돌려 주어 先王之好를 回復했다.]는 것이다.(南鮮經營說)

그러므로 倭政 36年은 侵略이 아니고, 復古라고 教科書에 記錄하여서 우리 政府에서 訂定을 要求한 抗議를 하였고, 李承晚 大統領이 對馬島 領有權을 主張했던 것도 古書에 根據한 것이라 한다.

이 때 阿花王은 百殘國(溫祚) 17代 王으로 漢城(北漢山)에 있었고, 五個 圈域은 利殘國(沸流) 領土임으로 地理的으로 全혀 맞지 않으며, 五個 圈域을 占領했다면 왜 出兵 記事와 戰鬪 記錄이 全혀 없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百濟 本記에 沸流百濟를 말살하여 五個 圈域이 溫祚十濟의 領土처럼 記錄하였기 때문에 日本人에게 “南鮮經營說” 主張의 條件을 提供한 것이 되어 있다 한다.

하루발리 歷史가 再編制 되어야 할 것 같은데 學者間으 權威 意識과 我執 등으로 後進들이 犧牲은 되지 않을런지 의문이 생기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取舍 選擇해야 할 것 같다.

應神 14(403)年條는 應神王이 亡命하니 남아 있는 小王國(擔魯) 縣民들이 弓月君의 引率下에 日本으로 亡命한 記事인데 百廿縣民이 大 移動을 하니 지금 같이 大形 船舶도 없었고, 隻數도 적어서 任那(釜山)에서 滯在하는 기간이 길어지



자 亡命 縣民들이 新羅의 國境에서 食糧과 衣類를 얻기 위해 掠奪함으로 新羅는 勘當할 길이 없어서 高句麗에 援兵을 請하니 [永樂 10年 步騎 五萬이 男居城에 이르자 倭賊이 물러가서 이를 추격하여 任那加羅를 陷落시키고 降服을 받았다.] 고 廣開土王 碑文에 刻했으며, 亡命 縣民을 倭賊으로 표현했다.

倭賊이라면 어째서 戰鬪 記錄 및 戰果 記錄이 없을까? 亡命 縣民이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결된 것이라 한다.(亡命 縣民을 倭賊이라 함은, 의문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海上路를 막아 버렸다.

弓月君이 應神天皇께 [自己가 引率해 오던 百廿縣民이 新羅人 때문에 길이 막혀서 任那加羅國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들을 데리러 襄津彦을 보냈으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보고 했다.

A·D 405 應神天皇은 木菟宿彌, 田宿彌 두 장수를 任那加羅에 出兵시켜 抑留된 亡命 縣民과 襄津彦을 데려오게 하였다.

두 장수가 新羅에 이르니 겁을 먹은 新羅王이 亡命 縣民과 襄津彦을 내 놓아 데려 갔는데 當時의 海上 輸送 能力이 極히 制限되어서 全員을 輸送하려면 相當한 期間이 所要되었을 것이고, 두 장수가 歸還 후에도 繼續해서 出港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질을 要求했을 것이다.

新羅로서는 亂民을 하루 속히 보내는 것이 上策이라 判斷하여 苦肉之策이나 爲質修交를 받아 들었던 것으로 보아지는 데 任那 日本府를 設置하여 統治했다고 主張하나 日本書記에 統治 記錄이 없으니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

應神 20(409)年條는 阿知使主가 亡命 十七縣民을 이끌고 아무런 저항없이 日本에 건너간 것이라 한다.

以上과 같이 莫大한 縣民이 日本으로 亡命함은 一時的 敗戰으로는 이루어 질 수는 없고, 그 當時의 한나라가 移動한 것이니 沸流百濟의 王弟 十臣만이 廣開土王에게 生捕되고 나머지 王室 宗親 其外 集團의 生死가 모호함을 뒷받침해 주는 記事가 日本書記에서 確認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또 潮流가 日本 九州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만 타면 自動으로 九州로 가게 된다고 하며, 日本 原住民들은 靑銅器 文化의 惠澤을 받지 못하여 활, 창, 칼을 가지고 亡命한 百濟人과는 相對가 되지 않았고, 타고 간 말은 지금의 탱크와 같이 偉力이 強했다 한다.

[南鮮經營說]은 出兵 및 戰鬪 記錄이 전혀 없으며, [任那 日本府說]은 日本이 神功皇后와 應神天皇 사이의 120年(二周甲 引上論)의 歷史的 斷層을 說明한데서



確實하게 밝혀질 것이나 東京大學 埴田和郎 教授가 人類學 雜誌에(87年 發行) 投稿한 內容 중 3世紀에서 5世紀까지 日本 人口의 原住民 1對 渡來人 9.6%의 比率이었고, 世界의 人口 增加 趨勢는 0.1%인데 反하여 日本은 0.4%의 증가를 보였는데 渡來人이 數百萬名으로 推算된다고 記錄 하였으니 間接적으로 韓國人 亡命을 是認한 것 같다는 것이다.

또 [飛鳥戶 神社](우리 나라의 寺)이 主神은 素淺鳴尊인데 [牛頭]라고도 부른다 한다.

[百濟 神社]의 懸板에 [百濟 國王 牛頭天王]이라 刻해져 있다 하니 素淺鳴尊은 百濟人으로 日本 神代記에 등장 하였음을 알 수 있고 [於美阿志 神社] 主神은 [阿知使主]인데 十七縣民을 引率하고 亡命한(409) 沸流百濟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한다.

## 6. 七支刀 外交

神功 52年(230)條에 沸流百濟의 使者 [父氏]는 倭의 [千熊長彦]을 帶同하고 神功에게 七支刀와 七子鏡을 선물하면서 臣國의 西쪽에 谷那鐵山이 있는데 倭가 鐵產地를 찾아 내면 永久히 租借하겠다고 提議했다고 日本書記에 記錄되었다 한다.

沸流百濟는 어떤 理由에서 谷那 鐵山地를 租借해 주겠다고 提議했을까?

1世紀 때 國出鐵(國產鐵)로 海上 貿易을 掌握했던 沸流百濟는 새로운 鐵資源을 確保하기 위해서 A·D 146경에 재령강 流域으로 北上했었으며, 國出鐵이 國際 通商 貿易의 基準이 되어 使用되고 있었다 한다.

A·D 205 遼東太守 公孫康이 沸流百濟가 占據한 黃州 以南의 재령강 以南에 強制로 帶方郡을 設置하였고, 阿羅伽伽 戰鬪로(A·D 209~212) 海上 루트가 斷絶되었으므로 A·D 227에 南江流域의 大長征이 있었다.

周邊 情勢의 變化로 因하여 A·D 230에 谷那의 鐵產地를 倭에 租借해 주겠다고 提議했다는 것이다.

南江 戰鬪에서 木羅斤資가 指揮하는 沸流百濟 軍士에게 倭의 增軍士(支援軍: 出兵이라 倭는 主張)가 有效했던 關係로 鐵山地를 빌려주면 倭는 이곳의 經濟的 利權을 守護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遼東太守 公孫康과 一戰을 치를 帶方戰線에 도 倭는 出兵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點을 이용할 속셈이었던 것인데 沸流百濟가 사정 한 것 처럼 臣國이라 기록했다는 것이다.

七支刀(가지가 6개)의 61字 銘文은 刀面 앞 뒤에 새겨진 金字像嵌인데 [泰



四年 丑月 十因日 丙午 正陽 造 百鍊鐵 七支刀 四辟百兵 宣復供候王 □□□□作先世以來 未有此刀 百濟王世子 奇生聖音 故爲倭王 旨造 傳示後世]이다.

□안에 글짜는 마모된 것을 紫外線 顯微鏡 寫眞機로 撮影하여 確認한 것이고 復元하지 못한 四字는 核心 部分인데 明治末년에 [石山神宮]의 大宮司職이던 管政友가 保管되어 있는 七支刀에서 故意로 削傷시킨 것 같다고 한다.

原文을 解釋하면 [위나라 大和 4年(A·D 230) 五月 十六日 丙午 正陽에(谷那産의) 百鍊鐵로 七支刀를 造했으니 百兵을 막아낸 諸王 諸侯들에게 골고루 供與할 수 있도록 (谷那産의 百鍊鐵로) 七支刀와 同 類品을 製作하시오. 先世 以來로 此刀와 같은 것은 未有했으나 百濟王 世子는 聖音(성음:비류백제왕을 지칭)의 뜻을 받드리 귀하를 倭王이 되게 했으니 此旨를 後世에 傳示하도록 하시오.]라 한다.

여기서 [故爲倭王]을 日本 史學者는 [倭王을 위한 故로]로 解釋하고 韓國서는 [倭王이 되었던 故로]로 解釋하며, 削傷한 4字도 日本은 [製作者 姓名]으로 主張하고 韓國서는 [同數品製]로 보고 있다.

百年前 中國에 있는 廣開土王 碑를 爆破하려다 未遂에 그치니 磨耗시키고 시멘트(石灰)로 발라서 알 수 없게 하였는가 하면 七支刀 銘文을 削傷隱蔽하는 것으로 보면 國史에는 빨리 눈을 떴다는 것 같은데 우리 國史는 아직도 方向을 잃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神功皇后는 어떤 女子이기에 倭王이 되었던 故로도 解釋해야 하는지 알아 보면,

### 神功皇后(一名 細鳥女) 一生 復原表

紀年	王 歷	年 齡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148年		出 生	迎日, 馬山縣, 出生 居住	三國遺史
157年	阿達王 4年	10歲	始置. 甘物. 馬山, 二縣, 馬山, 小王國, 脫出	三國史記
166年	阿達王 13年	19歲	春正月 辛亥期 木有食之(亡命)	三國史記
171年	仲哀 2年	24歲	立氣長足 姬尊 爲皇后(第三妃 入宮)	古 事 記
174年	仲哀 4年	24歲	倭女王 卑彌呼 遣使 來聘	三國史記
	無王期		倭國亂 相功伐 歷年	倭 誌
179年	神功 元年	32歲	乃共立 一女子 爲王 名曰 卑彌呼	倭 誌
230年	神功 52年	83歲	倭太和四年	七之刀銘文
240年	神功 69年	100歲	皇太后 崩時年 一百歲	日本書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神功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細鳥女(一名 卵生女)가 아니고서는 三個國 文獻이 一致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神功은 仲哀天皇의 第3妃로 揀擇되기 전부터 軍事 基盤(私兵)을 가지고 있어서 入宮한 직후부터 別支軍團을 이끌고 九州地方의 原住民인 [熊襲]의 征伐에 獨自的으로 參加한 것을 볼 수 있고, 新羅에서 追放된 怨恨에서 사뭇쳐서 新羅 征伐을 仲哀天皇에게 要求했을 것이나 戰爭에 지친 仲哀는 默殺해 버리자 慰勞(同寢)를 하는 것 처럼 誘引하여 殺害했을 것으로 推測된다.

仲哀가 渡來 女人을 三妃로 맞이한 理由는 周邊의 群小 集團을 討伐하며 지켰던 까닭에 莫強한 軍團을 가지고 있는 神功을 群小 集團 征伐에 利用하기 위하여 妃로 맞이하였을 것이라는 推測이다.

仲哀를 殺害 후 王이 된 神功은 使者를 新羅에 派遣함은(A·D 174) 쫓아 냈지만 나도 王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또 抗議도 兼했을 것이나 日本書記엔 征伐記事로 改書하여 [任那 日本府說]을 主張한다는 것이다.

神功은 男王系 統治를 단절시켜 反逆女人(A·D 174) 이었기에 古事記나 日本書記에 天皇의 序列에 올려 놓고도 王歷 代數의 天皇 稱號를 附與하지 않고 神功皇后로 부른 것 같다는 것이다.

七支刀는 가지(枝)가 6個있는데 이것은 神功皇后 밑에 擔魯制인 小王國이 6個가 있었다는 證據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1年 喜澤古墳(\*木縣 小山市)에서 의제(擬製) 七支刀가 發掘되었는데 原七支刀의 모양이 똑 같으나 2cm 가량 짧다 한다.

이것은 七支刀 銘文에 同類品을 만들어서 諸王 諸侯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 앞으로 어느 때 어디서인가 擬製 七支刀가 5個가 더 發見될 可能性이 있으며, 同類品 製作에 알게 되면 [倭王을 위한 故로]로 主張할 수 없으므로 故意로 削傷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博物館이나 資料館에 陳列된 冠, 칼, 거울, 마구, 裝身具, 佛像, 日用品에 이르기까지 百濟製, 新羅製, 伽樂 系統 製品 뿐이고, 日本製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셀크 로드 박람회]에는 古文化가 韓國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中國에서 九州로 直輸入된 것으로 表示하였으나 中國系 遺物은 陳列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祖上님의 발자취를 再 確認해야 할 것 같다.



## 7. 百濟와 倭의 마지막 修交

A·D 660에 羅唐 聯合軍에 의하여 溫祚百濟가 敗亡했다는 消息을 傳해들은 畿內朝(奈良朝)는 斷腸의 슬픔을 금치 못하였고, 濟名天皇(女)은 [州柔 降矣 事由奈何 百濟之名 絶于今日 丘墓之所 豈能復往]하고 恨歎했다고 한다.(日本書記)

解釋하면 [熊津城(州柔)이 降伏했으나, 이 일을 어찌할고, 百濟의 이름이 오늘로 끊겼으니 祖上의 墓所(丘墓之所)를 어떻게 내왕할까?] 이다.

濟明天皇은 3萬 大軍을 募兵하고 九州에 前進 基地를 設置하여 百濟를 復興시키려 하나 뜻을 이루기 전에 죽으며 遺言하여 아들 中大兄(天智天皇)이 663年 四百隻의 兵船에 二萬七千의 軍人과 武器, 食糧, 衣類를 가득 싣고 救援하여 왔으나 白村江(一名 白江:錦江) 戰鬪에서 羅唐 聯合軍에 敗戰하자 縣民 五萬을 싣고 돌아가니 民族의 大異動이 또 한 번 있었던 것이라 한다.

中大兄은 九州로 돌아가서 羅唐 聯合軍의 追擊 報復이 걱정이 되어서 664年 1.2km의 水域을 쌓고 宮城을 建立하니 이것이 太宰府다.(宮터만 復元되어 있음)

이 水域은 亡命 縣民이 夢村土城과 風納里 土城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 하며, 九州의 地圖를 보면 太白山, 妙香山, 부소산, 구지봉, 耽津 등 韓國 地名이 너무도 많을 뿐 아니라 朝鮮式 山城이 많았다고 記錄하였다 한다.

하루 아침에 失鄉民이 된 畿內朝(奈良朝)는 670년에 日本으로 國號를 바꾸고(倭國 更號 日本) 國史의 必要性을 느껴서 古事記(712)와 日本 書記(720)를 編纂하면서 沸流百濟와의 關係가 없었던 것 처럼 잘라 버리고 應神天皇의 出生地를 [應神王]이 첫 발을 디딘 上陸地인 北九州 福岡縣 系島郡 前原町으로 定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日本을 支配해 온 것 처럼 둔갑해 버렸으나 1979年 北九州 菊水町 住民들이 公州를 先祖之鄉으로 찾아내고 姉妹結緣을 맺었음은 日本人의 歸巢 衝動의 本來 自畫像 같다는 것이다.

七世紀까지는 韓國과 日本이 同一 文化圈에 同一 言語圈이었다 한다.

修交 文書에 通譯이 없을 뿐 아니라,

\* 熊津(곰나라)→父麻那利→熊成(구마나리)로

\* 擔魯(담로)→淡路(다무로)→淡路(아와지)로

標記하였으며, 丘墓之所, 先祖之鄉 등으로 立證된다는 것이다.

濟明天皇을 百濟 女人으로 보기도 한다.

古事記는 安萬呂가 [비전아래]가 押送한 것을 받아 쓴 것이라고 하는데 百濟 後孫이 기에 徹底하게 위장하였으나 끝내는 欺滿 操作하였음을 暴露되는 것이라 한다.



## 8. 2周甲(120年) 引上論

660年 百濟가 滅亡하자 自由롭게 來往하던 先山에 갈 수 없게 되었고 孤立되니 670년에 日本으로 國號를 바꾸면서 獨自的인 自衛 國家로 浮刻했다 한다.

國史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자 古事記와 日本 書記를 著述하면서 應神이 亡命 天皇임을 아예 抹殺해 버리고 南鮮經營說과 任那 日本府說 主張이 紀年上(年代) 고리가 連結되지 않으므로 神功과 應神사이에 120年(2周甲)을 引上시켜서 造作 編輯한 事實이 立證된다는 것이다.

\* 神功 55(255)年:百濟 肖古王 薨(214) 5代王

\* 神功 56(256)年:百濟 貴須王 立(375) 14代王

※ 日本 書記에 記錄됨

日本の 1年差는 韓國의 375(立)-214(薨)=161年 差가 생김으로 日本 史學界에서는 近肖古王의 近字가 脫落 記載되었다고 主張하나 日本 主張대로 近肖古王으로 修訂을 하여도 近肖古王 薨이 375年이니 375~255(神功 55年)=120年の 差가 생기고 韓國 史學界서는 卑彌呼(하미고)를 神功으로 比定하였고, 倭誌 三韓傳에도 [倭國亂 相攻伐 歷年 乃共立 女子爲王 名曰 卑彌呼]라 記錄했다.

解釋하면, [倭國이 戰爭을 여러해 하다가 女子가 王이 되니 이름은 卑彌呼다]인데 日本 史學界에서는 別個人으로 分離해 온 것도 二周甲引上 때문이라 한다.

2周甲을 引上하면 神功은 應神(390)의 바로 앞에 女王으로 4世紀 女人이 되고 卑彌呼는 3世紀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120年을 引上해 놓은 것을 調節 處理한 것을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 二周甲 解消 期間 中 各 天王 在位 年數

代數	天 皇	日本書記	古事記	實 際 期 間	備 考
15代	應神天皇	41年間	32年間	應神元年(A·D 390)	
16代	仁德天皇	87年間	33年間		
17代	履中天皇	6年間	5年間		
18代	反正天皇	5年間	5年間		
19代	允恭天皇	42年間	17年間		
20代	安康天皇	3年間		熊略 23年(A·D 479)	
21代	熊略天皇	23年間	35年間		
	合 計	207年間	127年間		



위표를 보면 一致點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873年(明治 6年) 菊水町 江田 船上古墳을 發掘하였는데 朝鮮式 기와집 모양의 石棺에 金銅製 모자, 거울 칼 등 2百餘點이 出土되어 國寶로 指定하고도 對外的으로 極秘密로 감추어 왔고 후지노기 古墳도 發掘하여 內視鏡으로 透視하고 3年이 되어서야 관을 열었을까? 副藏品이 모두 韓國系 製品이고 被葬者도 崇峻天皇으로 百濟에서 亡命한 蘇我家(崇佛派)의 後孫일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또 作家 李寧熙氏 發表에 의하면 日本人이 古文獻으로 자랑하는 萬葉集(만요슈)이 吏讀로 解釋하면 古代 韓國말 임이 밝혀진다고 한다.

現在 日本에 李寧熙 後援會가 組織되어서 會員이 千名 가량 되고 年會費를 1人 當 萬圓(英)씩 보내오고 있다는 것이다.(90年 12月 發表, 新聞에도 報道 됨)

韓日 關係를 古文獻까지 改書해 가면서 隱蔽하려 해도 진실은 밝혀짐은 법이니 一時的인 名譽나 權威 보다는 眞實하고 똑바로 살아갈 길을 걷는 것이 最善일 것 같다.

## 9. 遺 蹟

### 1) 괴임식 盤石製 石室 古墳

長山面 道昌里 배미산 아래에 [괴임식 石室 古墳]이 있다.

長 260cm, 幅 180cm, 高 160cm이며, 조개 껍질로 灰를 만들어 틈새를 막았고, 石室만을 11枚의 盤石으로 만들어졌다.

갱도(出入口)는 長 110cm, 幅 95cm, 高 85cm으로 雄大한 規模와 만든 기술은 놀랄만하고 최성락 교수는 世紀末葉에서 7世紀初에 만든것이며, 扶餘地方의 王 및 王族의 墓와 같아서 百濟와 支配階層이 살았다는 證據로 研究할 問題라 하였고, 1987年 6月 1日 字 全南 107號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었다.

91年 豫算에 反映되어 補修하게 된 것 같다.

앞 마을이 [대심터]인데 [臺臣 터]가 [대심 터]로 訛傳된 것 같다.

臺臣이란 司憲府의 持平(正五品), 執議(從三品), 掌令(正四品), 大司憲(從二品)이 備邊司에 勤務할 때에 總稱이라 한다.

日本 중(僧) 圓仁이 唐나라에 佛敎 留學 후 歸國길에 文聖王 9(847)年 9月 4日부터 韓半島 西南를 바라보면서 航海하여 9月 10日에 對馬島를 보았으며, 黑山島에 들리니 百濟 第三 王子가 避難와서 살고 있었다고 [入唐 求法 巡禮法]에 記錄하였다 하나 아마 이 때 王子나 宗親의 墓가 아닌가 推測해 본다.



마로 앞에 中學校는 郷校터라 傳해 온다.

教育 制度史에 仁宗 5(1127)年 3月 각 골의 學校를 세워 嶺道(진리)를 敎育하라는 詔書가 있어서 孔子님을 모시는 文宣王廟(文宣王:孔子님 諡號임)와 明倫堂(工夫房)이 설치 되었으며, 先生님은 助教라 稱했다.

太祖 1(1392)年 教育 改革을 하여 縣까지 1校式을 設立하여 儒生數는 府牧은 90名, 郡 50名, 縣 30名으로 定하고 教授(從六品) 1名, 訓導(正九品) 1名을 配置하였으며, 小郡에는 訓導만을 配置했다.

郷校에는 郷校田을 5結 내지 7結을 주어서 稅穀으로 經費를 充當하였다.

※ 1結=面積=約 千坪

穀食=100負(짐)

郷校에서 1年을 修學 후 初試에 合格하면 生員 또는 進士라 불렀고, 成均館에 進學하여 文科試에 合格하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는 準備場이라 記錄하였다.

長山 中學校 運動場가에서 拾得한 無紋土 기와 片, 魚骨 무늬 기와 片, 유약을 칠한 기와 片으로 보아서 3~4回 改補修한 것 같고, 여기를 지금도 [쌍귀터]라 부른다.

## 2) 大城山城 높이 198m

산마루에 오르면 烽燧臺라 전하는 山城이 있다.

壬辰倭亂(1598) 때 李舜臣將軍의 部下 李將棋將軍이 쌓았다고 전하나 城壁안 쪽 한 곳에서 無紋土 기와, 魚骨 무늬 기와, 유약을 칠한 것까지 6個 種類가 發見된 것으로 보아서 壬辰倭亂 훨씬 전에 構築한 것 같고, 한 곳에 數種의 기와 破片이 發見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改築時 破片을 긁어 모아서 부은 것으로 推測되며, 山城 北쪽에 城안으로 通路가 2個 設置된 것으로 보아 山城임이 틀림없다.

築臺 높이 2.3m, 面積 660m'로 城안에 設置한 “헬기” 着陸場을 파보면 지금도 쌀이 탄 숫덩이를 볼 수 있다.

木浦 文化財 保存處理所長 崔光南 教授님께서 이 쌀의 年代를 測定하기 위해서 1988年 10月 日本으로 보냈으니 좋은 소식이 오리라 기대한다.

이 城은 847年 文聖王이 烽燧臺로 構築했다가 903年 後百濟 甄萱이 王建의 再侵에 對備할 때와 1270年 三別抄亂 때 改補修한 것이 아닐까 推測해 본다.

놀라운 일은 東은 海南이, 南은 珍島가, 北은 安佐面이, 西는 都草와 新衣面이 城郭처럼 둘러쌓고 있는데 烏島와 新衣面 사이에 若干의 距離가 있어서 水平線이 바라다 보인다.



이 사이로 敵의 兵船을 監視하여 烽火로 連絡했다고 하니 이 地形을 어떻게 알고 踏查하였을까? 신기하기만 하고 百濟 때 (479)부터 縣監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海運이나 國防上 重要な 位置였던 것 같다.

### 3) 烽燧臺

烽火臺는 兵曹(現 國防部)에 屬했으며, 軍人の 通信網이다.

百濟 때도 있었을 것이나 記錄은 新羅 때 實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다.

李朝 때 烽火를 서울 南山에서 받았는데 全國을 5個 方面으로 나누어서 全羅道와 忠淸道는 京畿道 楊州 開花山 所屬이라 한다.

烽火臺 勤務者는 將校 2名, 烽軍 10名이 配置되어 두 交代로 24時間 불을 꺼서는 안되고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을 올렸다 한다.

#### ※ 烽火 方法

1개소:평상시

2개소:적이 보일 때

3개소:경계선에 적이 접근할 때

4개소:적이 경계선을 넘어선 때

5개소:아군과 적이 싸울 때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 隣接 官衙(官廳), 水營, 兵營에 連絡하는 한편 서울 南山(開花山) 烽燧臺에 當日中으로 連絡되었으며, 서울에 連絡하는 것을 直烽, 隣接 官衙에 連絡하는 것을 間烽이라 했고, 正確 迅速을 期하기 위해서 支烽과 分烽을 設置했다 하니 長山 烽燧臺는 三鄉面 烽燧峯 烽火와 連絡되었을 것 같다.

### 4) 長山 牧場

大成山麓에 들담이 마치 城郭처럼 쌓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들담은 牧場담으로 말이 逃亡가거나 雜種과 交接하는 것을 막아서 純種을 維持하려는 目的으로 4km(長山牧場 周十里)가 넘게 쌓은 곳이다.

大典會通 外官職條에 1個所의 牧場에 雄馬 15匹과 雌馬 100匹을 기르며, 群頭 1名, 群副 2名, 牧者 4名을 配置하였고, 1년에 50匹을 增殖시켜야 하며, 85匹을 增殖하면 監牧官의(從六品 儉使나 政府가 兼職하고 30個月 滿期) 職級을 昇進시키고 30匹 未滿을 增殖시키면 監牧官을 罷免하였고, 牧者가 말 1匹을 잃어버리면 棍杖 50度(대)와 棉布 8匹로(1匹은 20尺) 辨償했다 한다.



牧者는 良民中에서 뽑았고, 牧位田을 주어서 稅金을 免除하였으며, 軍人도 뽑지 않아서 希望者가 많았다 한다.

[輿地圖書]에 [長山牧者 27名]으로, [大典會通]의 定員數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서 規模가 다른 牧場 보다 放大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 5) 土壙墓(토광묘)

多水里에 田 382番地에 半破된 土壙墓가 長 176cm, 幅 47cm, 高 55cm가 된다.

黃土에 조개껍질 가루가 약간 섞여 있는데 흙을 무슨물로 익였는지 지금도 시멘트 처럼 단단하다.

淸酒로 비졌다는 말도 있으나 百濟 文化圈은 土壙墓制가 積石墓制에 밀려나서 衰退해졌다 하니 墓制의 特殊性을 알것도 같다.

안승주 교수는 百濟 古墳의 樣式과 變遷에서 아주 옛날엔 屍身의 머리가 東쪽을 向했는데(東枕說) 武寧王은 머리가 산 아래쪽을 向하고 있었으나 事緣은 알 수 없다고 한다.

#### 6) 人造石窟

香氣山 三角點이 서 있는 봉우리에서 北쪽으로 200m 쯤 내려가면 人造 石窟이 있다.

長 2.7m, 高 1m, 入口幅 1.3m, 內幅 0.8m, 窟 앞은 돌과 흙으로 담을 쌓아 隱蔽하였는데 10名 쯤 앉을 수 있고, 안 쪽에 直徑이 30cm, 깊이 60cm 가량의 구멍이 파져 있는데 用途는 알 수 없으나 火藥 貯藏所가 안닌가 싶고, 山麓에서 골짜기를 따라 交通壕를 세군데 만들었던 자취를 볼 수 있으며, 周圍의 傾斜度가 70~90도가 된다.

이 石窟은 將領의 指揮所로 推測되며, 難攻不落의 要塞地였던 것 같다.

앞 바다가 八口浦라 부르며, 壬辰倭亂 때 倭兵船을 誘引 燬滅했다는 말도 傳해지고 있다.

官邊 記錄(公文書)에 肅宗 10(1684)年 全羅水使 李師命이 임자, 압해, 장산, 인창, 조도, 노화도에 設置할 것을 上疏하였으며, 肅宗 32(1706)年 全羅監事使 閔鎭遠도 위의 6개섬에 設鎭할 것을 上啓하였는데 同 33(1707)年 위 섬에 水軍 防禦鎭을 쌓기로 했다고 記錄되었고, 34(1708)年 全羅水使 弼鍾의 設鎭 報告書



로 보아 國防의 警備로서 完備된 느낌이라는 것이다.

1年사이에 防禦鎭이 完了되었다 함은 既成 防禦鎭을 補修한 程度가 아닌가 생각된다.

8cm가 넘는 土城과 山城, 石窟 등은 1年 동안에 構築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903年 甄萱이 構築했다.

三別抄亂을 겪고 敗退한 것을 改補修하지 않았을까? 推測해 본다.

備邊司(國防部)는 戰時에만 設置하였는데 明宗 10(1555)年부터 常設 機關이 되었다 한다.(別表 參照)

(표)

年 度	內 容
	三韓時代는 馬韓에 屬함
BC. 18	沸流百濟 帶方故地(황해도, 재경강 중류)서 建國함 馬韓 서울에서 熊津城(公州)으로 遷都함
BC. 7	沸流百濟 海濱 彌離忽(牙山灣 仁州里)로 遷都함(百家 濟海 因 國號 百濟遂以 東夷強國) 溫祚十濟 河南 慰禮城(天原郡 稷山)으로 分立(十臣 爲輔翼因 國號 十濟)
BC. 5	溫祚十濟 漢山(廣州)으로 北遷함
AD. 10	沸流百濟 熊津馬韓을 滅亡시킴 “馬韓遂滅”
18	沸流百濟 熊津(公州)城으로 南遷함(熊津馬韓 益山으로 쫓겨감) 新安郡은 沸流百濟 阜夷島城(現 押海面 古耳島)에 屬함
371	溫祚十濟, 漢城(北漢山)으로 北遷함
396	廣開土王 利殘國(沸流百濟)을 討伐함 利殘國 日本 九州로 亡命함
397	百濟國(溫祚十濟) 日本 應神天皇과 最初 修交함
403	利殘國 弓月君 百升縣民을 引率하고 渡倭함
405	倭가 新羅와 爲質修交를 主張함
409	阿知使主 十七縣民을 引率하고 日本으로 亡命함
475	溫祚十濟 長壽王 侵攻으로 文周王 熊津城(公州)으로 南遷하여 國號를 百濟로 改稱함
479	郡縣制 實施로 勿阿部 阿次山郡(押海) 居知山縣(長山)으로 改稱함
660	百濟 羅唐 聯合軍에 滅亡함(白江 又 白村江(錦江) 戰鬪)
661	濟明天皇(日本) 百濟 救護軍 3萬을 募兵함
663	中大兄(天智天皇) 救護兵船 4百隻, 軍人 2萬 7千으로 出征하여 白江 戰鬪에서 敗하자 5萬 縣民이 또 亡命함
670	倭國 更號 日本(日本 書記)
757	行政區域 改編 壓海郡(押海) 安波縣(長山)이라 改稱(景德王 16年)
847	各處에 烽燧臺를 構築함(文聖王 9年)
903	後百濟 甄萱이 모든 城을 整備하여 王建의 再侵에 對備함



年 度	內 容
909	靑夷島城(古耳島)을 王建이 陷落함
918	王建이 登極함
940	長山縣으로 改稱함(高麗 太祖 23年)
1018	壓海郡을 廢郡함(顯宗 9年)
1225	蒙古軍 侵犯(高宗 12年)
1270	三別抄亂(元宗 11年)
AC.1350	倭賊數侵 州南 20里에 長山縣 設縣
1413	集結된 各縣을 廢縣함(太宗 23年)
1437	避難살이에서 入島함(世宗 9年)
1592	壬辰倭亂 때 避難(宣祖 25年)
1708	6個所에 設鎮(임자, 안창, 암태, 장산, 조도, 노화도)
1871	縣은 面으로, 縣監은 執綱으로 改稱함(高宗 8年)
1897	智島郡에 屬함
1903	執綱을 面長으로 改稱(大韓帝國 7年)
1913	務安郡 移屬함
1969	新安郡으로 分郡함